

2023년 윤리와 사상 2단원 문제 프린트

1번 문제 해설

이황과 이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갑은 이황, 을은 이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고 보는 이기호발설의 입장이고, 이이는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다는 것만 옳다고 보는 기발이승일도설의 입장이다.

{정답찾기}

ㄱ. 이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하고,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고 주장하였다.

ㄴ. 이황과 이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과 이이는 칠정을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탄 것이라고 보았으며, 기가 발하는 것이 절도에 맞지 않으면 칠정은 악이 된다고 보았다.

ㄷ. 이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이에 조작 능력이 없으므로 무위라고 보는 것은 이의 본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가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때가 없다고 보는 것은 이의 신묘한 생성 작용을 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ㄴ. 이황과 이이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과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정으로 보았다.

2번 문제 해설

이이의 이기론 이해

{문제분석}

제시된 ‘주장’을 한 사상가는 이이다. 이이는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비판하고,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한 가지 길만 있다는 기발이승일도설(氣發理乘一途說)을 제시하였다.

{정답해설}

ㄴ. 이이에 따르면 이는 형태가 없고[無形(무형)] 기는 형태가 있으며[有形(유형)], 이는 운동이 없고[無爲(무위)] 기는 운동이 있다[有爲(유위)].

ㄷ. 이이에 따르면 이는 운동이 없는 것으로서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운동이 있기 때문에 발하는 것이다.

{오답피하기}

ㄱ.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이와 기는 사물에서 별개로 분리될 수 없다[理氣不相離(이기불상리)].

ㄴ. 이기호발설을 주장한 이황이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시한 근거이다.

3번 문제 해설

이황과 이이의 이기론과 사단 칠정론 이해

{문제분석}

가상 논쟁을 하는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은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분별할 수 있듯이 정도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희의 말을 이기호발설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에 비해 이이는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은 결코 두 개의 성이 아니므로 정에 두 갈래의 근원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희의 말을 자신의 견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답해설}

③ 사단과 칠정을 각각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이라고 할 경우, 제시된 논쟁의 핵심 쟁점은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이 유래한 연원이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라는 것이다. 이황은 사단이라는 도덕 감정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이라는 일반 감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비해, 이이는 도덕 감정과 일반 감정의 연원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답피하기}

- ①, ⑤ 이황과 이이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 ②, ④ 이황과 이이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들이다. 그러므로 이것들은 모두 논쟁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없다.

4번 문제 해설

이이의 수양론 이해

{문제분석}

(가)는 모두 이이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가 발한 것이며,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 그리고 성(誠)은 마음의 본체이고 경(敬)은 학문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이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지만 기의 불완전성과 가변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도덕적 불완전성이 생긴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기질을 바로잡음으로써 도덕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해설}

③ 이이는 사사로움을 극복하는 것을 기질을 바로잡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사사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경(敬)의 실천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이이는 “경은 노력의 요체이며 성은 노력을 거둬들이는 바탕이다. 경으로 주재하여 사사로움을 제거하면 본체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오답피하기}

- ① 이이는 본성이 선하다고 보았으므로 ‘성의 실천을 통한 본성의 변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 ②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성(性)과 정(情)은 구분되는 것이며, 칠정을 순전한 성으로 바꿀 수는 없다.
- ④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덕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다. ‘사단의 확충을 통한 사덕의 형성’을 강조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 ⑤ ‘부여받은 기호(嗜好)에 따른 선의 선택과 실천’을 강조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5번 문제 해설

이이와 이황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이는 발할 수 없고 기만 발할 수 있다는 기발이승일도설을 주장하였다. 반면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을 주장하였다.

{정답찾기}

- ㄴ. 이이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이는 운동성이 없는 것으로서 발하는 까닭이고, 기는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반면 이황은 이와 기는 모두 운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와 기 모두 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ㄷ. 이황만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이 모두 기가 발한 것으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반면 이황은 사단은 이, 칠정은 기가 발한 것으로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 ㄱ. 이이와 이황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사단은 칠정을 겸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각기 다르다고 보았다.
- ㄹ. 이이와 이황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와 이황은 모두 칠정을 기의 움직임으로 드러나는 감정이라고 보았다.

6번 문제 해설

이이와 이황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작용이 없는 이는 발하는

까닭이고 작용이 있는 기는 발하는 것이므로 ‘기는 발하고 이는 탄다.’라는 한 가지 길만 있다고 보고 사단과 칠정 모두가 발하고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이’와 ‘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ㄱ. 이이와 이황이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와 이황은 모두 성(性)이 이미 발한 상태를 정(情)으로 보았다.
ㄴ. 이이와 이황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와 이황은 모두 본연지성을 기질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ㄷ. 이이와 이황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이는 칠정이 사단을 포함한다고 보았다.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을 각기 다르게 보아야 한다고 보아 사단이 칠정을 포함한다고 보지 않았다.
ㄹ. 이황이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할 때 기가 따르는 것으로 말해야 한다고 보았다.

7번 문제 해설

정약용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사덕을 선천적인 성(性)으로 보는 성리학의 입장을 비판하며, 사덕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영지의 기호를 일상의 행위 과정에서 실천함으로써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⑤ 이이와 이황은 사단이 사덕의 단서가 된다는 단서설을 주장한 반면, 정약용은 사단이 사덕의 시초가 된다는 단서설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이이와 이황은 모두 측은지심(惻隱之心)이 인(仁)의 단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이이, 이황, 정약용은 모두 사단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한 감정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정약용은 영지의 기호를 형성되는 것이 아닌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부여해 주는 성이라고 주장하였다.
④ 정약용은 본연지성을 하늘의 이치[天理(천리)]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8번 문제 해설

이황의 이기론과 사단 칠정론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듯이 정은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⑤ 이황은 주희의 “이와 기는 섞일 수 없다.”라는 주장에 주목하여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각기 다르다고 보았다. 이는 사단의 원천인 이(理)의 순수성과 절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 피하기}

①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라는 것은 이이의 입장이다.
② 이황은 본연의 성을 순선하다고 보았으며, 교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③ 이황은 칠정에는 선악의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보았다.
④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다.

9번 문제 해설

이이와 이황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가상 대화의 갑은 이이, 을은 이황이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유위(有爲)적 특성이 있는 기가 발한 것으로 보았으며 사단과 칠정은 분리될 수 없고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 ㄱ. 이황은 사단은 이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이이는 사단과 칠정 모두 기가 발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사단은 칠정이 선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ㄴ. 이황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주가 되는 바에 따라 이와 기 각각에 귀속시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이는 사단은 '이'를 위주로 한다는 것은 옳지만, 칠정은 이와 기를 포함하여 말할 것이기 때문에 기를 위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였다.
- ㄷ. 이황은 사단과 칠정을 서로 다른 연원을 가진 별개의 감정으로 보았으나, 이이는 감정은 칠정뿐이며 사단은 칠정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ㄴ. 이황과 이이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를 타서 드러난 감정으로 보았다.

10번 문제 해설

주희, 왕수인, 정약용의 입장 비교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타고난 사단(四端)의 실천을 통하여 사덕(四德)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② 주희는 사덕이 타고난 덕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정약용은 태어날 때 사단만을 가지고 있을 뿐 사덕은 실천을 통하여 형성되는 덕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주희에게 사덕이 실천을 통해 얻어지는 덕임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주희는 사단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적절한 비판으로 보기 어렵다.
- ③ 왕수인은 타고난 덕을 보존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왕수인은 사덕이 마음에 내재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덕이라고 주장하였다.
- ⑤ 주희나 왕수인 모두 칠정이 절제해야 할 감정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11번 문제 해설

이황, 이이, 정약용의 사상적 관점 비교

{문제 분석}

(가)의 갑은 이황, 을은 이이, 병은 정약용이다. 이황과 이이는 성리학자로서 성선설의 입장을 지지하였고, 정약용은 성기호설을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④ 정약용이 이황과 이이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다. 정약용은 도의의 성은 사람에게만 있는 것인데 성리학자들은 동물과 사람이 함께 얻었다고 한다며 비판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이황은 사단을 이가 발하고 기가 따른 감정이라고 보았고, 이이는 사단도 칠정과 같이 기가 발한 감정으로 보았다.
- ② 이황은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다르다고 보았고, 이이는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 ③ 정약용은 성리학자들이 기질 때문에 선악이 나누어진다고 본 것을 비판하였다. 정약용은 인간은 능동적 행위의 주체로서 선악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⑤ 이황은 인의예지를 본성으로 보았고, 정약용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기호를 본성으로 보았다.

12번 문제 해설

정약용과 주희 사상의 비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주희의 주장이다. 주희에 따르면 사단은 정이고 사

덕은 성에 갖추어져 있는 이이다. 그리고 사단은 마음에 사덕이 내재함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단서이다.

{정답해설}

ㄴ. 정약용은 부정, 주희는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ㄷ. 정약용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스스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권능이 부여되어 있다.
ㄹ. 정약용은 긍정, 주희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에 따르면 인의예지라는 사덕은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천리(天理)이다.

{오답피하기}

ㄱ. 정약용과 주희 모두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두 사상가에 따르면 사단은 본성[性(성)]이 아니라 선한 마음[心(심)]이나 감정[情(정)]이다.

13번 문제 해설

이이와 정약용이 이황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 내용 파악

{문제분석}

제시문은 이황의 주장이다. 이황에 따르면 성을 이와 기로 나누어 말할 수 있듯이 정 또한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사단은 이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고 칠정은 기를 위주로 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답해설}

④ 정약용은 성리학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비판하고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정약용은 이황에게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가 사람의 본성임을 모르고 있다.”라는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오답피하기}

- ① 이황은 이이와 달리 이가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이황은 이이와 마찬가지로 기가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이황은 본연지성을 순선한 것으로 보았다.
- ⑤ 이황은 이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을 본성으로 보지 않았다.

14번 문제 해설

정약용의 사상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정약용이다. 정약용은 성리학자들과는 달리 덕을 인간의 선천적 본성으로 보지 않고, 일상적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사덕은 사람의 마음에 처음부터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정답찾기}

ㄱ. 정약용은 인의예지의 사덕이 도덕적 실천을 통해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ㄷ. 정약용은 예의 단(端)인 사양지심을 시작으로 하여 예의 덕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ㄹ. 정약용은 사단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으나 본성이나 이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ㄴ. 정약용은 인간의 성이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라고 보았다.

15번 문제 해설

정약용이 이황, 이이에게 제기할 비판 내용 파악

{문제 분석}

제시문은 정약용의 주장이다. 그는 성리학의 성즉리설(性卽理說)을 부정하고 성기호설(性嗜好說)을 제시하였다.

{정답 찾기}

①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을 확충하기 전에는 인간의 마음에 사덕이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사덕은 마음에 부여되어 있는 천리(天理)가 아니라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얻게 되는 덕이다.

{오답 피하기}

- ② ‘사덕은 사단을 통해 그 존재를 알게 되는 덕’이라는 주장은 사단의 ‘단’을 ‘실마리[緒(서)]’로 해석하는 성리학자들이 할 수 있다. 정약용은 사단의 ‘단’을 ‘시작[始(시)]’으로 해석하였다.
- ③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덕이 아니다.
- ④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타고난 기호가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⑤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지 인간의 본성이 아니다.

16번 문제 해설

황로학과 사상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도교 사상 중 황로학파의 입장이다. 황로학파는 한 나라 초기에 등장하였으며, 전설상의 제왕인 황제와 노자를 숭상하는 사상이다.

{정답 찾기}

- ㄱ. 황로학파는 무위로써 다스린다는 제왕의 통치술을 주장한다.
- ㄴ. 황로학파는 무위의 다스림을 통해 백성들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한다.
- ㄷ. 황로학파는 도가를 바탕으로 유가·묵가·법가 등의 사상을 수용한다.

{오답 피하기}

ㄹ. 황로학파는 무위를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인위적인 제도를 수행자가 따라야 할 덕으로 보지 않는다.

17번 문제 해설

도교 사상의 전개 이해

{문제 분석}

그림의 수업 장면에서 교사는 도교 사상 중 태평도에 대해 질문하고 있다. 태평도는 천하태평의 이상 사회를 현실에 실현시키고자 하고, 죄를 고백하고 참회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찾기}

- 갑. 태평도는 만인이 부유하고 영화로운 태평 시대를 현실 사회에 실현한다는 종교적 이상을 제시한다.
- 정. 태평도는 인간이 올바른 수련을 하면 도의 경지에 들 수 있다고 본다.
- 무. 태평도는 인간이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덕적 선행을 권장한다.

{오답 피하기}

- 을. 노장사상을 철학적으로 계승하면서 청담 사상을 제시한 것은 현학이다.
- 병. 태평도는 종교적 이상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복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한다.

18번 문제 해설

노자와 공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같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는 통치자가 무위의 다스림을 행해야 한다고 보았고, 공자는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 ⑤ 노자는 인과 같은 덕목도 유위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혼란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노자는 도에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하는 것을 유위로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노자는 예를 타고나는 덕목으로 보지 않았다.
- ② 노자는 도를 본받아 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고, 공자는 도를 깨달아 도를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③ 공자는 통치의 핵심이 정명(正名)에 있다고 보았다. 정명은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④ 노자는 타고난 자연적 본성을 따라야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19번 문제 해설

도가와 불교의 입장 비교

{문제분석}

갑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이고, 을은 불교 사상가인 석가모니이다. 장자는 자유로운 정신적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 좌망(坐忘)과 심재(心齋)의 수양을 중시하였다. 석가모니는 팔정도의 수행을 중시하면서, 특히 팔정도의 하나인 바른 마음 챙김[正念(정념)]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정답찾기}

② 장자는 긍정, 석가모니는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는 인위적 조작을 없애는 좌망과 심재를 통해 제물(齊物)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석가모니는 제물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오답피하기}

① 석가모니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러나 장자는 공(空)함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③ 장자와 석가모니가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장자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석가모니는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④ 석가모니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석가모니는 마음을 바르게 관찰하고 생사에서 벗어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석가모니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구속에서 벗어나 절대 자유의 경지인 열반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번 문제 해설

장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문제분석}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세속의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도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 미추, 빈부의 분별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모든 차별이 사라진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⑤ 장자는 소요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대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내맡긴 몰아일체(物我一體)의 삶을 살아간다고 보았다.

{오답피하기}

① 장자는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② 장자는 사물들 사이의 귀천(貴賤)을 구별하려 하지 말고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③ 장자는 좌망과 심재를 통해 몰아일체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장자는 인의의 규범을 인위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비판하였다.

21번 문제 해설

장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장자이다. 장자는 도(道)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보고, 주위 환경에 의해 분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다.

{정답찾기}

④ 장자는 제물의 경지에서 사물을 보면 선악, 미추와 같은 분

별이 모두 사라지고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장자는 인위적인 예범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몰아일체를 지향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장자는 오감을 통해 얻은 감각적 지식은 만물을 차별하는 분별적 지식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 ③ 장자는 선악과 미추를 구분하는 분별과 차별이 사회 혼란의 원인이므로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 ⑤ 장자는 인위적인 도덕규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보았다.

22번 문제 해설

노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노자이다. 그는 무위자연의 삶을 추구하며 사람들에게 총애[寵(寵)]받거나 굴욕[辱(辱)]을 당하는 것에 모두 놀란 듯이 생각하며 인위에 따른 삶의 기준을 경계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⑤ 노자는 사람들이 구하기 어렵고 또한 귀하게 여기는 인위적 가치를 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소박한 삶을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오답 피하기}

- ① 타고난 이기적 본성을 예범을 배워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 사상가는 순자이다.
- ② 부모에 대한 효를 바탕으로 인격적 삶을 추구한 것은 유가의 입장이다.
- ③ 노자는 인간이 욕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옳은 일을 행하기 위해 굳센 도덕적 용기인 호연지기를 길러야 한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맹자이다.

23번 문제 해설

도가와 유가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같은 무위의 다스림을 강조한 노자, 율은 공자의 정명 사상을 계승한 맹자의 주장이다. 노자는 최상의 다스림은 인위적으로 다스리지 않는 다스림[無爲之治]이라고 본다.

{정답 찾기}

③ 맹자는 인의로써 백성이 도덕적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지만, 도가는 인의를 강조하면 백성의 자연스러운 덕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맹자는 덕을 함양하기 위한 꾸준한 선행[集義]을 강조하였다.
- ② 유가와 도가 모두 하늘이 인간에게 삶의 이치를 제공하기 때문에 모범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 ④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가 맹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이다.

노자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다툼을 좋아한다고 보지 않았으며 순수한 자연의 덕을 닦았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통치자가 먼저 도덕적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24번 문제 해설

노자와 공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같은 노자, 율은 공자이다. 노자는 자연은 불인(不仁)하기 때문에 인간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며, 공자는 효를 바탕으로 사람을 공경하여 인을 실천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③ 노자는 자연의 순리인 도가 사라지자 효도와 자애가 생겨났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노자가 말하는 도는 언어로써 표현할 수 없는 것이며, 노자는 인의를 추구하지 않았다.
- ② 공자가 강조한 인은 준비친소를 구분하는 사랑이다.
- ④ 공자는 성인의 도가 세속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고 보지 않았다.
- ⑤ 노자는 백성이 다스리는 자에 대해 모를 정도로 통치하는 무위의 정치를 추구하였고, 공자는 다스리는 자가 백성의 인격적 모범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25번 문제 해설
의천과 지눌의 사상 비교

{문제 분석}

갑은 의천이고, 을은 지눌이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조화를 추구하였다. 지눌은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을 융화하고자 하였다.

{정답 찾기}

③ 지눌은 선정은 마음의 본체를, 지혜는 마음의 인식 작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둘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의천은 교종과 선종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② 의천은 교학(敎學) 수행과 지관(止觀) 수행을 함께 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지눌은 단박에 깨달은 후 무명의 습기를 점차 소멸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⑤ 불교에서는 불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26번 문제 해설

원효 사상의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원효이다. 원효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어느 한 측면의 말에만 얽매어 다른 측면의 가르침을 부정하거나 배척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모든 종파와 사상을 분리시켜 고집하지 말고, 보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로 종합해야 한다는 원융회통(圓融會通) 사상을 정립하였다

{정답 해설}

첫째 입장. 원효는 일반 대중들도 염불 수행을 통해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입장. 원효는 일심으로 보면 다양한 교설(敎說)도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 둘째 입장. 원효는 생멸문과 진여문을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개별적 실체로 보지 않았다. 제시문에서도 두 문은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 넷째 입장. 원효는 일심을 바탕으로 각 종파가 강조하는 특수한 입장을 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7번 문제 해설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문제 분석}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이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이(理)라는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라는 심즉리(心卽理)를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ㄱ. 주희는 긍정의 대답을, 왕수인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는 선지후행(先知後行)을 주장하였고, 왕수인은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ㄴ. 주희는 긍정의 대답을, 왕수인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심통성정(心統性情)은 주희만의 주장이다.

{오답 피하기}

- ㄷ. 왕수인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왕수인은 양지가 마음의 본체이며 천리(天理)라고 보았다.
- ㄹ. 주희와 왕수인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주희와 왕수인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양지를 타고난다고 보았다.

28번 문제 해설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 비교

{문제 분석}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인간의 마음과 사물 모두에 이치가 내재해 있다고 주장하면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해야 한다[格物致知(격물치지)]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이 곧 이치[心即理(심즉리)]라고 주장하면서 격물치지를 마음이 있는 곳의 일을 바로잡아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良知)를 극진하게 이루는 것이라고 보았다.

{정답 찾기}

ㄴ.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마음의 본체이고, 즉각적으로 시비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ㄷ. 왕수인에 따르면 격물은 내 마음의 양지에 의거하여 바로지 못한 자신의 생각을 바로잡는 것[正]이다.

{오답 피하기}

ㄱ. 주희는 본성을 바로잡아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ㄹ. 주희만의 입장이다.

29번 문제 해설

순자, 왕수인, 주희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같은 순자, 을은 왕수인, 병은 주희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며, 인간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왕수인은 마음의 본체가 성이고, 성이 바로 이치라는 심즉리를 주장하였다. 주희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갖추어진 선한 본성은 곧 우주 만물의 보편적 법칙인 ‘이(理)’라는 성즉리를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③ 주희는 성(性)이 움직여 밖으로 드러난 것을 정(情)으로 보았다. 즉 성은 아직 움직이지 않은 것이고, 정은 이미 움직인 것이다.

{오답 피하기}

① 순자는 사람들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대로 내버려 두면 바르지 못하고 다스려지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스승과 법도로써 사람들을 교화시켜 바로잡아야 하고, 예의로써 행동을 규제하여 잘 다스려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② 왕수인은 마음과 성과 이는 본래 하나라는 심즉리를 주장하였다.
④ 왕수인과 주희는 모두 몸을 다스리고자 하면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⑤ 순자, 왕수인, 주희는 모두 소인(小人)이라 할지라도 노력을 쌓아 나가면 누구나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0번 문제 해설

주희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같은 주희,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의 격을 ‘이르다[至(지)]’로, 물을 ‘이치를 지닌 일[事(사)]’로, 치를 ‘지극한 곳까지 밀고 나가다’로, 지를 ‘앎’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므로 격물치지란 인간을 포함한 사물의 본성과 인간 사회의 마땅한 이치를 깊고 넓게 연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왕수인은 ‘격물치지’의 격을 ‘바로잡는다[正(정)]’로, 물을 ‘마음이 있는 곳의 일[事(사)]’로, 치를 ‘극진히 이루다’로, 지를 ‘양지(良知)’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양지를 하늘의 이치[天理(천리)]이자 마음의 본체로 보았다. 그러므로 격물치지란 천리인 내 마음의 양지를 개별 사물에서 극진하게 실현하여 바로

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찾기}

- ㄱ. 주희는 하나의 사물 속에는 반드시 하나의 이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ㄴ. 왕수인은 내 마음의 뜻과 생각이 향하는 일[事]이 물[物]이고, 격물이란 그 일을 바로잡는 것[正]이라고 보았다. 즉 어떤 일을 당해서 그 일에 관한 자신의 바르지 않은 생각을 바로잡는 것이다.
- ㄷ. 왕수인은 성을 마음의 본체이며 하늘이 부여한 이치이자 양지로 보았다.

{오답피하기}

ㄷ. 주희는 ‘격물치지’를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을 극진히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31번 문제 해설

순자와 왕수인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갑은 순자, 을은 왕수인이다. 순자는 인위를 쌓아 본성을 변화 시킴으로써, 왕수인은 사욕(私欲)을 제거하고 본성인 양지(良知)를 발휘함으로써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ㄷ. 순자에 따르면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고 남을 질투하고 미워하며 이목(耳目)의 욕망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본성은 악하다. 이에 반해 왕수인은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는 양지란 맹자가 주장한 시비지심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ㄷ. 순자는 자식이 부모에게 사양하는 것은 성정(性情)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왕수인은 본성인 양지에 따른 것으로 보았다.

{오답 피하기}

- ㄱ. 순자와 왕수인 모두 긍정할 질문이다. 순자는 본성이란 사람이 나면서부터 타고난 것으로 하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으며, 왕수인은 본성을 하늘이 명한 것으로 보았다.
- ㄴ. 순자와 왕수인 모두 부정할 질문이다. 순자는 인의(仁義)를 알 수 있는 도덕적 인식 능력과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보았다.

32번 문제 해설

공자의 인(仁)을 실천하는 올바른 자세 파악

{문제 분석}

대화의 ‘스승’은 공자이다. 공자가 강조한 인(仁)은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다. 공자에 따르면 인은 이기적인 욕망인 사욕(私欲)을 이기고 보편적인 규범인 예를 회복해야[克己復禮(극기복례)] 실현된다.

{정답해설}

ㄱ. 공자는 효제(孝悌)와 함께 충서(忠恕)를 인을 실천하는 기본 덕목으로 보았다. 충은 사람을 대하거나 일을 할 때 조금의 속임이나 꾸밈이 없이 정성을 다하는 것이다. 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것, 또는 나의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ㄷ. 공자는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 것[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비례물시 비례물청 비례물언 비례물동)]’을 강조하였다. 언제 어디서나 철저하게 예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답 피하기}

- ㄴ. 공자가 강조한 인은 시비선악의 분별을 전제로 해서 옳음과 선함을 좋아하고 옳지 않음과 악함을 미워하는 사람이 행하는 분별적 사랑이다.
- ㄷ. 공자는 ‘자기를 닦는 것[修己]’을 수양의 기본으로 보았다.

33번 문제 해설

맹자와 순자의 하늘에 대한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값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자신의 선한 본성을 알게 되면 하늘을 알 수 있다고 보고, 마음을 보존하여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보았다. 순자는 하늘과 인간은 엄연히 분리된 두 가지일 뿐이며[天人分二(천인분이)], 자연 현상과 인간의 일은 독립적이라고 보았다.

{정답 찾기}

③ 순자에 따르면 하늘은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인위를 할 수 없지만, 인간은 인위를 통해 자연의 사물을 다스릴 수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맹자는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본성을 악하다고 보고, 인간의 본성을 따르게 되면 세상이 어지럽게 된다고 본 사상가는 순자이다.
- ② 맹자는 하늘을 만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아니라 도덕의 근원으로 보았다.
- ④ 순자는 하늘이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을 부여하는 실체가 아니라고 보았다.
- ⑤ 맹자는 천명(天命)에 따라 예(禮)를 확립해야 한다고 보았다.

34번 문제 해설

순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순자의 주장이다. 순자는 사람은 누구나 악한 본성을 지닌 소인(小人)으로 태어난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인(聖人)이 제정한 예의(禮義)를 배우고 익히면 누구나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 ㄴ. 순자는 사람은 예의를 따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나 후천적인 노력으로써 악한 본성을 교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 ㄷ. 순자는 성인이라 할지라도 타고난 본성을 따르면 사양(辭讓)하지 않게 된다고 보았다.
- ㄹ. 순자는 성인과 소인이 모두 동일한 본성을 지니고 태어났다고 보았다. 그러나 순자는 소인과 달리 성인을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 예의와 법도를 만든 사람으로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순자는 사람이 예의를 행함은 타고난 본성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제정한 예의를 배우고 익혀서 행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35번 문제 해설

맹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가)의 값은 맹자, 을은 순자이다. 맹자는 인간이 남에게 차마 어찌하지 못하는 선한 마음을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고, 군주는 이러한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은 악하며,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은 인위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보았다.

{정답 찾기}

- ㄴ. 맹자는 선한 본성을 확충하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예를 배워 악한 본성을 변화시킨다면 누구나 군자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ㄹ. 순자는 예를 고대의 성왕(聖王)이 인간 본성의 교화와 재화의 공정한 분배를 위해 만든 인위적인 규범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맹자는 예를 인간이 타고나는 사덕(四德) 중 하나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맹자와 순자의 공통 입장이다. 맹자는 모든 사람은 선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았으며, 순자는 모든 사람은 악한 본성을 타고난다고 보았다.

ㄴ. 맹자만의 입장이다. 맹자는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규범은 하늘이 부여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순자는 하늘이 물리적인 자연 현상에 불과함을 강조하고, 도덕규범은 성인이 제정한 것이라고 보았다.

36번 문제 해설

맹자와 고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성무선악설(性無善惡說)을 주장한 고자의 주장이다.

{정답 찾기}

④ 고자는 선과 불선은 본성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데 비해, 맹자는 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본성이 발현된 것이고 불선을 행하는 것은 선한 본성이 발현되지 못한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맹자는 인은 내재적인 것이고 의는 외재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았다.

②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거나 악하다고 할 것이 없다고 주장한 사상가는 고자이다.

③ 맹자는 생리적 본능을 본성으로 본다면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아지는데 어떻게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동물과 구분되는 사람만의 선한 본성이라고 주장하였다.

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주장하였다.

37번 문제 해설

맹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무력에 의존하는 패도 정치를 비판하며 인과 의에 기반을 두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정답 찾기}

① 맹자는 인을 바탕으로 하여 군주의 어진 마음이 구체적인 정치 현실로 표현될 때 왕도 정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② 맹자는 군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백성이 도덕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③ 맹자는 군주가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보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맹자는 인의를 해치는 군주는 역성혁명을 통해 교체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맹자는 선비가 일반 백성과 달리 언제나 항심을 지닐 수 있다고 보았다.

38번 문제 해설

공자와 순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같은 공자, 을은 순자이다. 공자는 덕치(德治)를 강조하였고, 순자는 예치(禮治)를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ㄴ.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면 성왕이 필요 없게 되고 예의도 쓸모없게 된다고 보았으며, 인간의 본성이 악하므로 성왕과 예의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ㄷ. 공자는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운 것처럼 모든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다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 사회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보고 정명을 강조하였다. 순자도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면 사회 질서가 바로잡힐 것이라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ㄱ. 공자는 군주가 덕치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지만 군주가 형벌의 시행에 관심을 두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공자는 “예악이 세워지지 않으면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고, 형벌이 적절하게 시행되지 못하면 백성이 손발 들 곳도 모르고 찢쩍매게 된다.”라고 주장하며 정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적절한 시행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㉔. 순자는 군자가 예를 높이고 현자를 존중하면 왕자가 되고, 법을 중시하고 백성을 사랑하면 패자가 된다고 보았다

39번 문제 해설

공자, 맹자, 순자의 정치사상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같은 공자, 을은 맹자, 병은 순자이다. 공자와 맹자는 하늘을 도덕과 통치의 근거로 보았으며 덕으로써 백성을 다스릴 것 [德治(덕치)]을 강조하였다. 한편 순자는 고대 성왕이 제정한 예(禮)를 통치의 표준으로 보았으며 예에 근거하여 통치[禮治(예치)]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⑤ 유교 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공자, 맹자, 순자 모두 성왕인 요순의 통치를 본받을 것을 강조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공자는 명분[名]을 바로잡지 않으면 예악이 세워지지 않고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맹자에 따르면 일반 백성은 항산(恒産)이 없으면 항심(恒心)을 지닐 수 없다.

③ 순자는 예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세상을 다스릴 때 [禮治(예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④ 맹자와 순자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보았다.

40번 문제 해설

석가모니의 사상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세상 모든 것이 연기(緣起)에 따라 변화함을 깨닫고 집착을 소멸하기 위해 노력하면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㉑. 석가모니는 고통의 원인인 무명과 애욕을 제거하면 윤회에서 벗어나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㉒. 석가모니는 연기를 바르게 통찰하여 지혜를 갖추면 무상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㉓. 석가모니는 만물이 인연에 따라 생기고 소멸하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없다고 보았다.

㉔. 석가모니는 쾌락과 고통의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수행을 강조하였다.

41번 문제 해설

석가모니의 연기설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주장이다. 석가모니는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의 상호 관계에 의하여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현상도 사라지게 된다고 보았다.

{정답 찾기}

㉑. 중도(中道)는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를 바르게 실천하면 열반을 성취할 수 있다. 열반에 이르면 어떤 존재로도 다시 태어나지 않게 되므로 존재의 계속됨이 사라지게 된다.

㉒. 연기설에 따르면 괴로움이 생겨나는 원인과 조건인 무명(無明)과 애욕을 없애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㉓. 석가모니는 중생들이 사성제를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을 끝없이 되풀이하게 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㉑. 중도는 쾌락과 고행의 중간에 깨달음의 길이 있다는 의미이다. 석가모니는 고행의 실천으로는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고 보았다.

42번 문제 해설

석가모니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석가모니의 사법인설 중 제법무아(諸法無我)에 대한 내용이다. 석가모니는 인간이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체에 불과하므로, 오온이 무아(無我)임을 통찰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시문은 오온 중 색온(色蘊)의 무아를 말하고 있다.

{정답 찾기}

ㄱ. 석가모니는 팔정도의 수행으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ㄴ.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는 무상(無常)하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제행무상(諸行無常)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석가모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는 지혜를 얻으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인 열반을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ㄹ. 석가모니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경지인 멸제(滅諦)에 도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3번 문제 해설

석가모니의 기본 사상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석가모니는 비구들을 대상으로 연기(緣起)와 연기된 법(法)들에 대해 풀어써 이야기했으며, 제시문은 그 내용들의 일부이다.

{정답 찾기}

④ 석가모니는 갈애와 탐욕을 인간의 본성으로 보지 않았으며, 벗어날 수 없다고 보지도 않았다.

{오답 피하기}

① 석가모니는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② 석가모니는 진리의 법을 통찰하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도(道)를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③ 석가모니는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유해한 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통찰하고 도(道)를 닦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⑤ 석가모니의 사상은 연기(緣起)의 법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존재와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에 의해 생겨난다.

44번 문제 해설

용수의 중론(中論) 사상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을 주장한 사상가는 용수이다. 용수는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空)이며, 연기(緣起)에 의해 일어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① 용수는 우리가 체험하는 모든 일과 현상들은 모두 연기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② 용수는 나를 포함한 모든 현상들은 실체가 없는 공(空)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분별 없는 지(智)에 이르기 위해 요가 수행을 강조하는 것은 유식(唯識) 사상의 주요 특성이다.
④ 용수의 공(空) 사상은 고정불변하는 독자적 성질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는다.
⑤ 용수의 공 사상과 달리 유식 사상은 마음의 작용인 식(識)은 존재하며, 이 마음의 작용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재도 없다는 유식(唯識)을 강조한다.

45번 문제 해설

{문제 분석}

(가)는 중관 사상, (나)는 유식 사상이다. 중관 사상은 연기의 진리가 곧 공(空)이며 중도(中道)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일체 존재는 고정된 불변의 성질인 자성(自性)을 갖지 못한다고 본다. 유식사상은 우리가 인식하는 외부 세계와 나는 오직 식(識)으로만 있을 뿐이며, 실제로는 그와 같은 대상[境]은 없다고 본다.

{정답 찾기}

ㄱ. 중관 사상에 따르면 최고의 진리에 관하여 무슨 말을 하든 그것은 언어 습관상의 표현에 불과하며 최고의 진리에 관해서는 언어로 확정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공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이면 안 된다고 본다.

ㄴ. 중관 사상과 유식 사상 모두 공관(空觀)에 기반하고 있다. 인연 화합에 의해 나타난 존재와 현상은 일시적인 것이므로, 우리가 실체라고 볼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답 피하기}

ㄷ. 중관 사상은 모든 존재와 현상이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부정하므로, 자성이 중생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지 않는다.

ㄹ. 유식 사상에 따르면 식을 떠나서는 어떠한 실체도 없다.

46번 문제 해설

혜능과 의천의 불교 사상 이해

{문제 분석}

같은 혜능, 을은 의천이다. 혜능은 선종(禪宗) 사상가로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직관하면, 지식 공부와 점진적 수행을 거치지 않고도 단박에 성불(成佛)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의천은 교관겸수(教觀兼修), 즉 교리 체계에 해당하는 교(教)와 실천 수행 방법인 지관(止觀)을 함께 닦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④ 의천은 원효의 화쟁 사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화쟁의 정신을 바탕으로 선종과 교종 간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혜능은 단박에 깨달으면 바로 위없는 지혜를 얻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혜능은 정(定)과 혜(慧)가 체와 용의 관계이므로 서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았다.

③ 의천은 당시 고려 불교의 신비적이고 주술적 성격에 대해 비판적이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재정립하기 위해 교학 연구를 강조하였다.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과의 화해를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그는 경전 공부와 참선 공부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⑤ 혜능의 선종은 경전의 가르침과 별도로 전수된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교외별전(教外別傳)’을 불립 문자(不立文字)와 함께 주요 종지로 강조하였다. 의천은 교관겸수의 수행을 주장하였다.

47번 문제 해설

유교, 불교, 도가 사상의 현대적 의의 파악

{문제 분석}

(가)는 유교 사상가인 맹자의 주장이고, (나)는 불교 사상가인 석가모니의 주장이며, (다)는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주장이다. (가)는 군자는 남을 닦하기보다 스스로를 반성하는 삶을 산다는 내용이고, (나)는 불교의 중도 수행 방법인 팔정도에 대한 내용이며, (다)는 도가의 수양 방법 중 하나인 심체에 대한 내용이다.

{정답해설}

ㄱ. (가)의 유교적 관점에서는 자신이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ㄴ. (나)의 불교적 관점에서는 만물의 무상함을 깨달아서 탐욕, 애욕,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ㄷ. (가), (나), (다)의 유교, 불교, 도가 사상은 모두 개인의 수

양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세속적 탐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오답 피하기}

ㄷ. (다)의 도가적 관점에서는 자연과 인간을 분리해서 보지 않았으며, 몰아일체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세계는 분리된 부분들의 단순 집합체일 뿐이라고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48번 문제 해설

불교 사상과 유교 사상의 입장에서 도가 사상에 제시할 수 있는 견해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도가 사상가인 장자의 주장이다. 도가에서는 인의(仁義)와 같은 인위적 규범은 상덕(上德)인 도(道)가 무너진 이후에 나타난 하덕(下德)에 불과하다고 본다. 장자는 인위적 지혜에 따른 시비의 구분은 인간의 편견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③ 유교에서는 타고난 인간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性善說)을 주장한다. 장자는 자연적 본성을 회복하여 만물을 차별 없이 대할 때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① 불교에서는 생사(生死)를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를 고통으로 인식하고 깨달음을 통해 이러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한다. 장자는 삶과 죽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장자는 인간의 오감을 통해 얻은 지식은 상대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러한 편견에서 벗어날 때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④ 장자를 포함한 도가에서는 상덕인 도가 사라진 이후에 하덕으로서 인의가 나타난다고 본다.

⑤ 불교에서는 분별적인 인식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장자는 시비(是非), 선악(善惡), 귀천(貴賤), 미추(美醜) 등의 분별적 차별 의식을 버릴 때 외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자신이 하나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49번 문제 해설

맹자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주장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동물과 달리 선하며, 군주는 백성이 선한 본성의 실현을 돕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ㄱ. 맹자는 군주가 백성보다 인격적으로 모범이 되기 위해 수기치인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백성을 위한 정치는 백성의 일정한 생업인 향산을 보장하여 향심을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ㄴ. 맹자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백성을 군주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패도 정치를 배격하였다. 패도를 행하는 군주는 교체하는 것도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ㄷ. 맹자는 성선설의 입장을 가지지만 지속적인 수양과 도덕적 실천이 없이는 대장부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ㄹ. 성현의 가르침으로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은 성악설을 주장한 순자의 입장이다.

50번 문제 해설

유교와 불교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가)는 유교, (나)는 불교이다. 유교는 신의를 바탕으로 옳은 일을 권하고[勸善]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하며, 불교는 자신만을 위한 탐욕, 성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동체대비의 자비를 실천할 것을 강조한다.

{정답 찾기}

ㄴ. 불교는 세계가 연기에 의해서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통합된 유기체와 같다는 입장이다.

ㄷ. 유교와 불교는 도덕적 수양의 과정에 힘쓸 것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오답 피하기}

ㄱ. 유교는 하늘의 뜻을 도덕 법칙으로 이해하므로 인위적 가치 기준으로 대치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ㄷ. 불교는 인간과 자연이 연기적 관계에 있으며, 만물은 불가분의 관계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보며, 유교 역시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51번 문제 해설

원불교의 기본 입장 파악

{문제 분석}

그림의 강연자는 원불교 창시자 박중빈이다. 박중빈은 불교 사상을 토대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수행과 실천을 강조하였다. 그는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과 신앙의 대상으로 보았으며, 정신과 육체를 함께 수양[靈肉雙全(영육쌍전)]하고 도학과 과학을 아울러 수행하는 방법[理事並行(이사병행)]을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② 박중빈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수양해야 한다는 영육쌍전을 주장하였다.

{오답 피하기}

①, ④ 박중빈은 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일상생활 속에서의 종교적 수양과 사회적 실천을 강조하는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다.

③ 박중빈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예법을 통해 사회적 분별을 강조한 것은 유교 사상이다.

⑤ 박중빈은 개혁을 통해 현실에서 이상 사회를 이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52번 문제 해설

정제두의 사상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조선 양명학 사상가인 정제두의 주장이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심즉리(心卽理), 치양지(致良知), 지행합일(知行合一)의 학설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다. 그는 마음 안에서 생생하게 작용하는 이치인 생리(生理)를 중심으로 인간이 도덕적 주체임을 자각하고, 양지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찾기}

ㄱ. 정제두는 지행합일의 관점에서 양지를 이해하기 때문에 “양지라고 말하면 앞 속에 행함이 있고 행함 속에 앞이 있으니, 선후를 나눌 수 없다.”라고 밝혔다.

ㄷ. 정제두는 양지가 실현되지 않는 이유는 욕심에 양지가 가려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ㄷ. 정제두는 생리를 바탕으로 인간이 도덕적 주체라고 주장하면서 “본래 사람의 생리 속에는 밝게 깨닫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두루 잘 통해서 어둡지 않게 된다.”라고 밝혔다.

{오답 피하기}

ㄴ.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성리학의 격물치지론이다. 정제두는 양명학의 격물치지론을 계승하며, 인욕을 제거하여 마음의 본체인 양지를 온전히 실현해야 한다고 보았다.

53번 문제 해설

동학과 증산교의 기본 입장 비교

{문제 분석}

갑은 동학의 2대 교주인 최시형, 을은 증산교를 창시한 강일순이다. 동학은 모든 사람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하면서 신분 차별, 남녀 차별, 노소 차별이 심했던 당시의 사회 질서를 거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증산교는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가 지배하는 후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답찾기}

① 동학과 증산교는 모두 후천 개벽을 통해 내세보다 현세에서 사회 혼란을 극복하고 이상 세계를 열고자 하였다.

{오답피하기}

② 동학과 증산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일원상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은 것은 원불교이다.

③ 증산교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증산교는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 신앙과 도가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하였다.

④ 동학과 증산교 모두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동학과 증산교는 성리학적 신분 질서에 따른 억압과 차별을 비판하였다.

⑤ 증산교에서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증산교는 상극의 원한을 풀어 주는 해원(解冤)과 하늘과 땅의 운행 질서를 근본으로 뜯어고치는 천지공사(天地公事)를 강조하였다.

54번 문제 해설

정제두 사상의 이해

{문제분석}

제시문은 정제두의 주장이다. 정제두는 조선 후기에 양명학의 학풍을 수용하여 발전시켰다. 그는 왕수인의 심즉리설(心卽理說),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 등을 계승하였으며, 양지(良知)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수용하여 조선 양명학을 수립하였다.

{정답해설}

⑤ 정제두는 양지를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라고 주장하였다.

{오답피하기}

① 인간이 양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은 성선설을 주장한 맹자의 주장이다. 따라서 양지를 인정했던 정제두는 악한 본성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② 양지는 누구나 타고나는 것이므로 정제두는 사단을 확충하여 양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③ 정제두는 마음과 이치[理]를 둘로 분리시키는 수양 방법에 반대하였다.

④ 정제두는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는 성리학의 격물치지에 대해 마음과 이치를 둘로 나누어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55번 문제 해설

증산교와 원불교 사상 이해

{문제분석}

같은 증산교 사상가인 강일순, 을은 원불교 사상가인 박중빈이다. 증산교는 원한을 풀고 다른 이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해원상생(解冤相生)을 강조하며, 현세에서 지상 낙원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원불교는 기존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내세운다. 또한 정신과 물질의 균형 있는 발전을 지향하며 영육쌍전(靈肉雙全)을 주장한다.

{정답찾기}

ㄴ. 증산교와 원불교는 당시 백성들의 힘든 삶에 공감하며 신분에 의해 차별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한다.

ㄷ. 증산교와 원불교는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오답피하기}

ㄱ. 증산교는 해원상생을 통해 내세보다는 현세에서 이상 세계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ㄴ. 원불교는 유학적 가치를 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삼학을 촉진시키는 신(信)·분(忿)·의(疑)·성(誠)과 삼학 수행에서 버려야 할 불신(不信)·탐욕(貪慾)·나(懶, 게으름)·우(愚)를 합하여 팔조라 하고 인격 수련의 요체로 삼는다.

56번 문제 해설

동도서기론과 위정척사 사상의 비교 이해

{문제 분석}

같은 동도서기(東道西器)론을 주장한 신기선이며, 을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을 주장한 이항로이다. 동도서기론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東道]를 지키면서 서양의 우수한 과학 기술[西器]을 수용하자는 입장이며, 위정척사 사상은 올바른 것[正,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은 지키고 사악한 것[邪,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답 찾기}

ㄴ. 동도서기론은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을 수용하자는 입장이고, 위정척사 사상은 모든 서양 문물을 사악한 것으로 보고 배척하자는 입장이다.

ㄷ. 동도서기론의 동도와 위정척사 사상의 올바른 것은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뜻한다. 따라서 유교적 가치와 질서를 근본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주장은 동도서기론과 위정척사 사상의 공통된 입장이다.

{오답 피하기}

ㄱ. 동도서기론은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은 수용하되, 천주교 등 서양의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는 수용을 반대한다.

ㄹ. 서양의 종교와 사상을 거부하고 인의예지와 같은 유교적 가치 덕목과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은 동도서기론과 위정척사 사상의 공통된 입장이다.

57번 문제 해설

동학사상, 증산교 사상, 원불교 사상의 입장에서 위정척사 사상에 제기할 수 있는 비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올바른 것[正, 유교적 가치 체계와 질서]은 지키고 사악한 것[邪, 서양과 일본의 문물]은 배척해야 한다는 위정척사 사상가 이항로의 주장이다.

{정답 찾기}

① 동학은 시천주, 인내천 사상에 근거한 인본주의, 사해 평등주의를 주장하며 신분, 남녀, 노소의 차별을 반대한다. 이와 달리 위정척사 사상은 기존의 성리학적 신분 질서의 수호를 주장한다.

{오답 피하기}

② 증산교는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무속과 도가의 사상을 재해석하여 사상적 기초를 닦았다.

③ 원불교는 물질문명의 발전 속도를 정신문명이 따라가지 못함을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물질문명과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강조한다.

④ 위정척사 사상은 절개와 의리를 바탕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지킬 것을 강조한다.

⑤ 증산교와 원불교 모두 현세에서 이상 세계의 건설이 가능하다는 후천 개벽을 주장한다.

58번 문제 해설

정제두의 사상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조선의 양명학 체계를 수립한 정제두의 주장이다. 정제두는 왕수인의 양명학을 새롭게 해석하고 발전시켰는데 그는 양지(良知)를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로 보았다.

{정답 찾기}

첫 번째 입장. 정제두는 도덕적 앎과 실천은 따로 구분되지 않으며, 앎은 행함의 시작이고 행함은 앎의 완성이라는 지행합일(知行合一)을 주장하였다.

네 번째 입장. 정제두는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 즉 양지를 시비 판단의 기준으로 보았다.

{오답 피하기}

두 번째 입장. 정제두는 마음이 곧 천리임을 주장하며, 이치는 외물(外物)에 있지 않고 모두 마음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세 번째 입장. 정제두는 모든 인간은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선천적인 도덕 자각 능력인 양지를 지닌다고 보았다.

59번 문제 해설

정약용, 정제두, 이이의 사상적 입장 비교 이해

{문제 분석}

제시문은 실학사상을 집대성한 정약용의 주장이다. 정약용은 이법적 실체인 이를 본성으로 보는 기존의 성리학적 입장을 비판하고, 본성을 기호로 보며, 도덕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정답 찾기}

⑤ 정약용은 인의예지라는 덕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형성된다고 보았지만, 이이와 정제두는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다고 보았다.

{오답 피하기}

- ① 정제두는 천리를 보전하고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는 존천리거인육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 ② 정제두는 인간에게는 생생하게 활동하는 참된 이치로서 양지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 ③ 이이는 사덕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선한 본성임을 주장하였다.
- ④ 이이는 성리학을 계승하여 격물치지의 수양 방법을 중요하게 여겼다.

60번 문제 해설

동학과 위정척사의 사상적 입장 이해

{문제 분석}

(가)는 동학, (나)는 위정척사이다. 동학은 시천주(侍天主)를 강조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존엄하다고 주장한다. 위정척사는 삼강오륜의 유교적 가치를 근간으로 민족의 주체성을 확립하고자 한다.

{정답 찾기}

동학과 위정척사는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을 위해 반외세적 특성을 가지며, 특히 서양의 종교적 가치를 배척한다.

{오답 피하기}

- ① 동학은 보국안민을 주장하지만 신분 제도를 반대하며 평등사상을 주장한다.
- ② 물질의 개혁과 정신의 개혁을 통해 후천 개혁을 이루려 했던 근대 한국 사상은 증산교, 동학, 원불교 등이다.
- ③ 동학은 위정척사와 달리 유교적 질서, 특히 신분 질서를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④ 동학과 위정척사 모두 내세보다 현세에서 이상 세계를 이룰 것을 강조한다.